

김대건 신부님과 동갑내기 음악가 프란츠 도플러

Albert Franz Doppler

임주빈 모니카 _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2021년 올해는 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가장 크게 기념할만한 희년입니다.

200년 전 김 신부님 탄생 연도를 기억하다가 같은 해에 클래식 음악계엔 어떤 음악가가 태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이름을 떠올릴만한 유명 작곡가 중엔 없는 것 같고, 찾아보다 눈에 띈 사람은 프란츠 도플러(Albert Franz Doppler 1821~1883)라는 음악가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플루티스트로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대표작으로는 <헝가리 전원 환상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작곡가 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음악을 배운 것은 아버지 요제프 도플러 Joseph Doppler에게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작곡가, 오보이스트로 활동했었고, 프란츠의 네 살 아래 동생인 카를 도플러 Karl Doppler 또한 당대 유명한 플루티스트여서 두 형제가 같이 유럽 전역에서 플루트 연주회를 많이 했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카를 도플러의 아들(Arpad Doppler)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다고 하니 도플러 집안은 3대에 걸친 음악가 집안인 셈이죠.

서양 음악사를 보면 대대로 음악가 집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집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흐 집안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가문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버지들과 아버지 삼형제가 모두 음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바흐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 중엔 음악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성공한 음악가가 세 명(빌헬름 프리데만, 카를 임마누엘, 요한 크리스티안)이나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바흐 집안엔 발에 차이는 사람이 음악가’라고 할 정도였죠.

또, 우리가 하이든이라고 알고 있는 요제프 하이든(Joseph Haydn)은 같은 성씨 ‘하이든’ 아래 미하엘(Michael)이라는 이름의 동생 음악가를 두고 있으며,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Johann Strauss) 2세도 그 아